

인하사회과학논총

Inha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 31 2016



인하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인하 사회과학논총

Inha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 31, 2016

<목 차>

인천 가치 재창조 연구	김천권	5
시민사회와 행정	정일섭	19
A Discours on Problematique of Decentralization and Critical Civil Societies in South Korea	서규환	47
이민자의 사회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 국내 체류 결혼이민자와 외국국적동포를 중심으로	정영태	63
중국대학의 관료주의 문화	정하영	91
보육교사의 직무만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국·공립과 민간보육시설 비교를 중심으로	장부년	119
해방의 잠재력으로서의 "기억의 정치학" : 벤야민의 "기억" 개념을 중심으로	박상희	143
한국 선거에서 불평등 민주주의 : 제18대 대선 소득별 투표 행태 분석	서희원	159
영화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윤주엽	185
부록 논문작성 및 집필요강		205

이민자의 사회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 국내 체류 결혼이민자와 외국국적동포를 중심으로

정영태**

이 논문은 이민자 대상 설문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와 결혼이민자의 한국 사회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사회신뢰를 종속변수로 하고 자발적 결사체나 사회적 연결망 참여경험, 지역공동체와 사회구조에 대한 경험과 인식 관련 변수들을 설명변수로 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과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발적 결사체 관련 변수 중에는 주민자치회·반상회와 같은 공적 모임 참여만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지역공동체와 사회구조에 대한 경험이나 인식 관련 변수 중에는 문화차이, 생활만족도, 법 집행 공정성, 정부의 내 의견에 대한 관심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인 사회경제적 배경 관련 변수 중에는 나이와 종교(그 중 개신교)가 사회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결론에서는 분석 결과가 갖는 이론적 시사점을 설명하였다.

주제어 : 이민자, 외국국적동포,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사회신뢰, 다중회귀분석

I. 서론

이민자가 체류국 사회를 신뢰하면 체류국 국민과의 갈등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민자가 체류국 사회생활에 보다 깊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체류국 사회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민자 개인의 입장에서 삶이 질이 높아지고 정신건강이 증진되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수명도 늘어날 수 있다(이동원 2013; 박종민 외 2006; 김옥진 2014; Delhey et al. 2003). 반면 이민자가 체류국 사회를 신뢰하지 않아 제대로 통합되지 않으면 내국인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체류국은 국가재정이나 사회적 비용 증가라는 대가를 지불하게 될

* 이 논문은 2014년도 인하대학교의 교내 일반교수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50345: 협약번호 1318200372).

** 인하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 (ytjung@inha.ac.kr)

것이다(전대성 외 2016). 한국정부도 이 점을 인식하여 2008년 처음으로 외국인정책을 도입할 때 이민자 사회통합을 4대 정책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였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8). 그런데 이민자 사회통합이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신뢰 등 사회통합과 관련된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영향요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바탕위에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¹⁾ 그러나 이민자의 사회통합과 사회신뢰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²⁾

본 논문에서는 한국체류 이민자를 대상으로 최근에 실시한 설문조사의 원자료(raw data)를 사용하여 결혼이민자와 외국국적동포의 한국 사회신뢰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 두 이민자집단을 택한 이유는 외국인 주민 중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는 국민의 배우자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외국국적동포는 같은 민족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영구히 또는 장기 정주할 가능성이 다른 어느 집단보다 높기 때문이다.³⁾

이후 서술의 순서는 먼저, 사회신뢰에 대한 기존연구를 검토하고, 다음으로 『2012년 체류외국인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사회신뢰 영향요인을 파악한 뒤, 결론에서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
- 1) 사회통합과 사회신뢰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사회통합은 사회구성원이 통합되어 있는 상태이고, 사회신뢰는 이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통합된 사회는 안정적이어서 갈등이 나타나지 않으면 직접 확인하기 어렵고, 표면상으로 안정적이어도 이면에 놓여 있는 불안정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합된 사회의 상태 또는 특징은 사회구성원들의 심리상태나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장용석 외 2012). 통합된 사회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특성에는 신뢰, 소속감, 협력의지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행동상의 특성은 공동체가 직면한 위기나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 행동이 포함될 수 있다(노대명 2009; Chan et al. 2006; Bollen et al. 1990; Saggat et al. 2012; 이희길 2013).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사회신뢰는 사회통합의 중요한 지표 내지 구성요소인 것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사회통합을 내국인과 외국인이 상호 이해와 존중으로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유지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조건’, 그러한 조건을 갖추어 나가는 ‘과정’이나 내국인과 외국인의 ‘노력’으로 정의하기도 한다(설동훈 외 2008; 설동훈 2010; 전경옥 외 2011; 정기선 2012; 문유경 외 2011; 김이선 외 2013; 신명숙 2013; 김영란 2013). 이러한 개념정의 방식의 한계에 대해서는 정영태 외(2014)를 참조할 것.
 - 2) 정대성·길장목(2016)도 본 연구와 유사한 문제의식에서 재한 외국인의 한국사회 신뢰와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으나, 사회통합과 사회자본의 관계나 사회통합과 사회신뢰의 관계에 대한 설명도 없이 사회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다가 사회자본과 사회신뢰에 대한 논의로 비약하고 있다.
 - 3) 통계청의 외국인고용조사결과(2012~2014, 매년 5월 실시)에 의하면, 5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비율은 영주(F-5) 68~74%, 재외동포(F-4) 51%, 결혼이민자(F-2-1, F-6) 41~47%, 방문취업(H-2) 26~33%, 전문인력(E-1~7) 18~23%, 유학생(D-2) 10~12%, 비전문취업(E-9) 5~6%의 순으로, 영주자를 제외하면 재외동포(특례비전문취업 제외한 외국국적동포)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결혼이민자이다. 영주자격이나 국적의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의 비율은 결혼이민자 70~77%, 재외동포 35~36%, 방문취업 26~34%, 전문인력 2~8%, 비전문취업 2~3%로, 결혼이민자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재외동포이다(통계청 2012; 2013; 2014).

II. 사회신뢰에 대한 연구

사회신뢰에 대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 사회신뢰가 독립변인 또는 매개변인으로서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관계 만족도(배경희 외 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김선혜 2011)과 양육참여·양육효능감(이채원 2015), 국민의 제도신뢰(박희봉 외 2009), 국민의 다문화정책지지(이재완 2013), 국민의 정부신뢰와 정부경쟁력(박희봉 외 2011; 서형준 외 2015)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들이다.

일부 연구는 사회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으나, 한국 또는 외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유석춘 외(2003)은 산업화와 민주화 수준 그리고 정치문화가 신뢰, 박희봉 외(2003)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단체참여와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요인이 대인신뢰, 단체신뢰, 대중매체 신뢰, 류석춘과 왕혜숙(2008)은 동창회와 같은 연고집단과 시민단체와 같은 자발적 결사체 참여가 사회신뢰, 박종민과 김왕식(2006)은 시민사회(단체참여)와 국가제도가 사회신뢰, 박병진(2007)은 사회참여의 유형이 사회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들은 나름대로 사회신뢰의 영향요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분석대상이 내국인이라는 한계가 있다.

최근에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나왔는데, 권아연과 조삼섭(2014), 전대성과 길강목(2016)이 그것이다. 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획득한 공중관계(public relation)의 특성이 이민 만족도와 한국사회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후자는 제한 외국인의 소속감과 사회참여 그리고 차별경험과 범죄피해경험이 한국사회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두 연구 모두 국내에서는 최초로 이민자의 사회신뢰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아연과 조삼섭(2014)의 연구대상이 외국인근로자에 한정되어 있는데다가, 사회신뢰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특정 프로그램 참여경험에 한정시키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전대성과 길강목(2016)은 분석대상을 재외동포와 외국인 전문기술직 종사자로 하여 차별경험, 범죄피해경험, 소속감, 사회참여 등과 제한 외국인의 사회경제적 지위(SES) 등을 영향요인으로 포함하여 통계분석을 함으로서 분석대상의 범위도 넓고 방법론적으로도 정교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는 다음 두 가지 한계가 있다. 먼저, ‘한국사회 신뢰’의 개념이 명확하지도 않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문항도 적절치 않다. 일반적으로는 ‘한국사회 신뢰’는 한국사회전반에 대한 신뢰(social trust)를 의미하는데, 전대성과 길강목(2016)은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문항으로 ‘귀하는 한국에 살면서 지역사회 및 이웃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습니까?’를 사용하고 있다.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와 하위단위(지역

사회, 이웃)에 대한 신뢰는 다를 수 있다. 특히 지역사회 간, 이웃 간 갈등이 격심한 우리 사회에서는 지역사회나 이웃을 신뢰한다고 해서 전체 사회를 신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사회신뢰의 형성에 차별경험이나 범죄피해경험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국가 특히 법집행기관의 공정성도 사회신뢰 즉 일반화된 신뢰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Levi 1998; 박종민 외 2006). 즉 개인 간의 신뢰가 강한 연줄망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고 일반화된 신뢰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주요한 국가 제도에 대한 신뢰의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⁴⁾ 코헨(Cohen 1999)에 의하면, 특수한 신뢰가 일반화된 신뢰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매개체가 필요하고, 그 매개체는 바로 국가와 같은 제도에 대한 신뢰다. 특히 처벌과 문화적 가치나 규범을 법규화한 법과 같은 제도가 이러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매개체다. 이런 이유에서 법질서 집행기관이 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지 못하면 일반시민들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스스로 조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전대성과 길강목의 연구(2016)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회신뢰의 영향요인을 제외한 셈이다.

이처럼, 이민자의 사회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물고, 얼마 되지 않는 연구도 분석대상의 범위, 개념, 영향요인 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에 대한 신뢰, 즉 일반화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Ⅲ. 이론적 논의

1. 개념

먼저, 사회신뢰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본다. 신뢰의 사전적 의미는 ‘굳게 믿고 의지함’이다. 신뢰의 영어 표현은 ‘trust’, ‘confidence’, ‘faith’로 신뢰, 신임, 믿음 등으로 해석된다. 학술적인 의미는 연구자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나,⁵⁾ ‘둘 또는

4) 서구 자본주의를 지탱해온 민주주의는 사회질서형성을 위한, 일종의 불신의 제도화 과정이자 결과이며(Sztompka 1999), 근대화과정은 전통사회가 분화되는 과정으로 근대화가 진행될수록 일상적 관계나 느슨한 규범에 기초한 사회에서 법에 기초한 사회로 전환하게 되고 이 전환과정에서 가까운 개인들의 성격이나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사적 신뢰보다는 합리적·합법적 기준에 의해 형성된 공적 신뢰가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 국가, 시장, 그리고 사회 전 영역에서 제도화가 복잡하게 이루어질수록 공적 신뢰의 중요성은 커지고 그만큼 공적 제도의 기능 또한 중요해지는 것이다(이재혁 1998; 박병진 2007).

5) ‘위험에도 불구하고 신뢰 대상이 신뢰자의 이해에 부합되게 행동할 것이라는 주관적인 기대와 그러

그 이상의 사람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서(feeling)로서 상대의 행위를 완벽하게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없어 어느 정도의 위험(risk)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행위가 반규범적이거나 본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김은미 외 2012, 48)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불확정한 위험 상황 속에서 내가 아는 사람 또는 모르는 누군가가 나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최소한 나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신뢰로 정의할 수 있다(김옥진 2014).

신뢰는 일반적으로 신뢰의 대상을 기준으로 대인신뢰(interpersonal trust)와 사회신뢰(social trust)로 구분한다. 대인신뢰는 다시 가까운 친지에 대한 신뢰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유사성도 없는 일반적 타인에 대한 신뢰(일반신뢰, generalized trust)로 나누어진다. 반면 사회신뢰에 대한 신뢰는 구체적인 제도에 대한 신뢰와 추상적인 사회일반에 대한 신뢰로 구분된다. 구체적 제도에 대한 신뢰는 주요(개별적인)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로 측정할 수 있고, 사회(일반)신뢰는 대인신뢰와 구체적인 제도에 대한 신뢰를 포함하면서 동시에 이 둘을 초월하는 가장 포괄적이고 총합적인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를 의미한다(박병진 2007).⁶⁾

신뢰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로서,⁷⁾ 사회적 연결망(social network)이나 호혜(reciprocity)와 같은 다른 유형의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임완섭 2014). 또한 신뢰는 가시적·비가시적 거래비용을 절감하여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경제성장에도 기여한다(Fukuyama 1995; Delhey et al.

한 기대를 근거하여 자발적으로 자신을 취약한 상태에 두려는 성향(Mayer et al. 1995; 이주호 외 2013, 368),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취약성을 기꺼이 받아들여려는 의지, 즉 위험감수 의지’(박통화·원숙연 2001) 등과 같이 정의하는 이들도 있다.

- 6) 사람에 대한 신뢰와 법·제도·기관·조직·집단에 대한 신뢰의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사람에 대한 신뢰는 다시 두 사람 간의 신뢰(one-to-one trust), 특정적 신뢰(particularized trust), 일반화된 신뢰(generalized trust) 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전자는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관계를 가진 두 개인 사이에 형성·유지되는 신뢰로, 이해관계를 따져 상호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될 때 형성되기 때문에 계산적 신뢰(calculative trust)라고도 한다. 반면 특정된 신뢰는 특수한 이해관계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집단지향적인 신뢰로서, 내집단 구성원들이 사회화과정을 통해 공동의 가치와 행동양식을 갖게 됨에 따라 높은 수준의 집단정체성(group identity)을 발전시킬 때 형성되는 신뢰다. 마지막으로, 일반화된 신뢰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유사성도 없는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는 신뢰로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보다는 ‘보통 사람’으로 추상화된 형태를 갖는다.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나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협력적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믿음은 나도 역시 상호성의 원칙에 입각해 그 사람의 이해를 보전하고 증진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발전한다(김옥진 2014)
- 7) 사회자본(social capital)은 Putnam(2000)에 따르면 “개인들 사이의 연계, 그리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호혜성과 신뢰의 규범”을 말하고, 네트워크와 같은 구조적인 요소와 신뢰·호혜성과 같은 문화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이병기 2009). 사회자본은 공공선을 위한 이타적 행위 및 협조적 규범, 이타적 행위로서 사회봉사, 기부, 결사체 참여(개인이익 중심, 정서적 안정, 취미와 취향의 공유), 연줄망, 일반적 대인신뢰 등을 망라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회자본이 일반적 자원인지, 아니면 특수집단의 배타적 자원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박병진 2007).

2003; 이동원 2013). 뿐만 아니라, 신뢰는 서로 처음 만나거나 익명의 사람들을 통합하여 조화로운 관계를 맺도록 하여 사회통합에도 기여하고, 현안에도 적극 관여케 하고 자발적으로 공동의 문제해결에 협력하도록 하며, 정치인이나 관료의 부패를 줄이고 국민에 대한 반응성을 높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며 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한다(이동원 2013; 김옥진 2014; Delhey et al. 2003).⁸⁾ 나아가 신뢰는 개인의 차원에서도 삶의 질을 높이고 정신건강을 증진시켜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수명을 늘리는데도 기여한다(박종민 외 2006; 김옥진 2014; Delhey et al. 2003).

이처럼, 신뢰가 사회자본의 중요한 요소로서 긍정적인 측면을 갖는 것은 분명하지만, 모든 유형의 신뢰가 그런 것은 아니다. 사회자본과 마찬가지로, 신뢰의 대상이 특수집단의 구성원에 한정될 경우 사회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폐해가 될 수 있다. 환경의 불확실성과 정보접근의 어려움이 커지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집단 구성원에 대한 배타적 이득을 보장하고 심리적 안전감을 보장하는데 기여하는 사적 신뢰는 오히려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킬 수 있다(김우식 2002). 강한 사적 신뢰에 기반을 둔 연줄망을 통해 중앙집중화된 한정된 자원을 소수집단에 의해 장악되는 것을 방지하고 만연한 부정부패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적 신뢰를 공적 신뢰 즉 사회신뢰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박병진 2007). 이러한 이유에서 이민자의 사회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일 수 있다.

2. 사회신뢰 영향요인

다음, 사회신뢰를 생성하게 하는 요인을 살펴보기로 한다. 델헤이와 뉴튼(Delhey et al. 2003)에 의하면, 사회신뢰의 영향요인에 대한 접근방법에는 크게 개인에 초점을 맞추는 개인중심 접근방법과 사회에 초점을 맞추는 사회중심 접근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사회신뢰의 영향요인을 개인의 성향(personality traits) 즉, 신뢰성향 또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 찾는 반면, 후자는 신뢰를 촉진하는 정치·사회제도 등과 같은 사회체제 또는 사회제도에서 그 영향요인을 모색한다.

개인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개인중심이론에는 다시 개성이론과 사회적 성공이론의 두 가지가 있다. 개성이론(personality theory)에서는 사회심리학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신뢰를 초기 아동기의 사회화과정을 통해 부모로부터 습득한 뒤 정서적 외상을 초래하는 경험하지 않는 한 대체로 지속되는 개성의 핵심 요소로 파악하고 있다(Erikson 1950; Allport 1961; Cattell 1965; Uslaner 1999; 2000; Delhey et al. 2003에서 재인용).⁹⁾ 이 이론을 내세우는 연구자들은 사회신뢰(성향)

8) 모든 유형의 신뢰가 공동체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9) 개성이론에서는 사회신뢰 이외에도 낙관주의(optimism), 협력에 대한 믿음(belief in cooperation),

가 낙천주의(optimism)나 외부 세계(또는 자신의 삶)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주관적인 감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Uslaner 1999). 사회적 성공이론(social success and well-being theory)에서는 개인 관련 요인에 관심을 가진다는 점에서 개성이론을 유사하나 사회심리학적인 측면이 아니라 삶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 사회적 지위, 교육수준, 삶의 만족도, 직업만족도, 행복감, 불안감 등과 같은 사회인구학적인 조건에 초점을 맞춘다. 예를 들면, 신뢰는 일반적으로 위험부담이 따르지만 특히 가난한 이들에게는 그 부담이 더욱 크기 때문에 신뢰가 약하나, 부유한 이들은 그 부담을 감수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신뢰가 강하다는 것이다(Banfield 1958; Delhey et al. 2003, 96에서 재인용). 오렌(Orrén) 등도 금전, 사회적 지위, 직업·삶의 만족도, 주관적인 행복감의 측면에서 승자인 이들이 상대적으로 사회신뢰가 높다는 연구들도 사회적 성공이론에 속한다(Orrén 1997; Newton 1999a; Whiteley 1999).¹⁰⁾

다른 한편, 사회체제나 사회의 특성·제도에 초점을 맞추는 사회중심이론에서는 신뢰는 좀처럼 변치 않는 개성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경험의 산물로서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신뢰와 불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뀔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사회조사에서 나타난 신뢰수준은 응답자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얼마나 신뢰할만한지를 말해주는 것이지 응답자의 개성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회신뢰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면 사회체제 수준의 요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사회중심이론에는 자발적 결사체이론, 사회적 연결망이론, 공동체이론, 사회구조이론 등의 네 가지가 있다.

먼저, 자발적 결사체론(voluntary association theory)은 다양한 성격의 결사체와 조직이 많은 사회일수록 높은 수준의 사회신뢰가 생성된다고 주장한다(Tocqueville 1956; Almond et al. 1963; Putnam 1993; Warren 2001; 박종민 외 2006에서 재인용). 이 이론에 의하면, 지역사회(local community) 수준의 자발적 단체에 참여하여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접촉함으로써 시민덕성과 민주규범을 학습하게 되고 나아가 참여기술과 자원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사람들이 자발적 결사체에 참여하여 다른 구성원과 친밀하게 지냄으로써 참여의 미덕은 물론 신뢰, 상호성, 협력, 타인에 대한 공감, 공동의 이익과 공공선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을 배우게 된다(박종민 외 2006; Dedley et al. 2003). 자발적 결사체이론은 주로 사회신뢰와 자발적 결사체의 가입과 활동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한다.

다음, 사회적 연결망이론(network theory)에서는 공식적인 결사체보다는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맺는 사회적 연결이 사회신뢰의 형성에 더 중요하다고 본다. 이 경우

자신감(confidence)이 개성의 구성요소로 본다(Delhey et al. 2003, 95).

10) Inglehart(1999)와 Putnam(2000)도 사회신뢰, 행복감, 건강(well-being) 간의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Delhey et al. 2003, 96).

일상적인 사회적 연결망은 동네 선술집, 직장, 독서모임, 봉사단체 등에서 우연히 만나거나, 학교, 주민센터, 거주지 등에서 카풀(car pool)이나 어린이 돌봄 또는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일시적인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에 느슨한 형태로 엮어진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사회적 연결이론은 주로 비공식 사회적 네트워크와 사회신뢰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한다.

그 다음, 지역공동체론(community theory)은 지역공동체 내의 비공식 사회적 연결망이 아니라 지역공동체 그 자체의 특성, 예를 들면, 도시규모 또는 공동체에 대한 만족도나 안전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신뢰 형성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사회구조이론(societal theory)은 지역공동체가 아니라 전체 사회 또는 국가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서 주로 인용되는 사회신뢰 영향요인은 국민소득, 소득불평등, 보편적 사회복지, 사법부의 독립,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소득이나 에스니시티(ethnicity)등에 의한 사회양극화 등이다. 이 경우 방금 언급한 요소와 관련된 제도 등 객관적인 조건에 대한 구성원들의 감정이나 인식을 측정하여 가설을 검증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논의에 근거하여 사회신뢰의 영향요인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먼저, 개성이론과 사회적 성공이론에서 제시한 영향요인으로 소득, 국적 등과 같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언어능력, 한국사회이해정도,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자발적 결사체이론과 사회적 연결망이론에서 제시한 영향요인에는 동호회·여가모임, 종교단체, 주민자치회·반상회 참여경험, 공동체론에서 제시한 영향요인에는 문화차이에 따른 어려움 정도 인식, 차별경험, 폭력·범죄피해경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구조론과 관련된 영향요인에는 정부의 나에 대한 관심, 정부신뢰, 법집행기구 공정성을 각각 포함시켰다.

그리고 개성이론과 사회적 성공이론에서 제시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영향요인은 통제변수로 하고, 자발적 결사체이론과 사회적 연결망이론에서 제시한 영향요인과 공동체론과 사회구조론에서 제시한 영향요인들은 독립변수로 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사회신뢰 영향요인에 대한 접근방법과 이론

접근방법	이론	영향요인	본 연구에서 채택한 영향요인
개인중심	개성이론	낙천주의, 외부세계나 나의 삶에 대한 통제력	소득, 국적 등과 같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언어능력, 한국사회이해정도,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사회적 성공이론	소득, 사회적 지위, 삶의 만족도, 직업만족도, 행복감, 불안감	
사회중심	자발적 결사체론	자발적 결사체 가입·활동 여부	동호회·여가모임, 종교단체, 주민자치회·반상회 참여경험
	사회적 연결망이론	타인과의 비공식적인(또는 사적인) 네트워크	

공동체론	도시규모, 공동체에 대한 만족도, 공동체의 안전성	문화차이, 차별경험, 폭력·범죄피해경험
사회구조론	사회갈등, 민주주의제도에 대한 만족도, 정치적 자유, 공공안전	정부의 나에 대한 관심, 정부신뢰, 법집행기구 공정성

자료: Delhey and Newton(2003), 101쪽의 <표>를 참조하여 재구성함.

IV. 자료분석방법과 분석결과

1. 자료와 분석방법

본 논문에서 활용한 통계자료는 『2012년 체류외국인 실태조사: 영주권자와 귀화자를 중심으로』(정기선 외 2012)의 원자료(raw data)이고,¹¹⁾ 종속변수와 설명변수를 다음과 같이 선정, 리코딩(recording)하였다. 종속변수는 사회신뢰로 하였고, 개성이론과 사회적 성공이론에서 제시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영향요인은 통제에 따라 통제변수로 하였으며, 자발적 결사체이론과 사회적 연결망이론에서 제시한 영향요인과, 공동체론과 사회구조론에서 제시한 영향요인들은 독립변수로 하였다. 각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문항과 코딩은 <표 2>와 같이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기법은 각 설명변수 내 집단별 평균의 차이가 유의미한지, 즉 각 설명변수가 종속변수인 사회신뢰에 개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SPSS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들 설명변수와 통제변수가 사회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1) 「2012 체류외국인 실태조사」는 영주권자(F-5) 조사와 귀화자 조사로 구성되어 있고, 영주권자 조사는 한국계 중국인, 중국, 대만, 일본, 베트남, 미국, 캐나다, 필리핀, 태국 출신들을, 귀화자 조사는 한국계 중국인,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출신들을 대상으로 수행했다. 조사 대상 출신국가를 제한한 것은 영주권자와 귀화자 모두 위의 국가출신들이 전체의 95%를 넘게 차지하기 때문이다. 조사의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제공한 영주권자 및 귀화자 모집단 리스트를 바탕으로 다단계지역집락표집방법을 사용해 각각 50개의 시군구에서 영주권자와 귀화자를 표본·추출하였다. 현지조사는 조사대상자의 모국어로 번역된 설문지와 한글본 설문지를 조사원이 직접 가지고 조사 대상 가구를 일일이 방문해 면접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조사에 응한 응답자는 영주권자가 774명이고, 귀화자가 618명이다.

<표 2> 변수 선정 및 코딩

범주	문항	코딩	비고
사회신뢰	한국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는가(A1)	0-완전불신, 10-완전신뢰	종속 변수
자발적 결사체와 사회적 연결망	동호회·여가모임(D3-2)	0-참여하지 않음 3-온라인·오프라인 모두 비슷한 정도로 참여	
	종교단체(D3-4)		
	주민자치회·반상회 (D3-5)		
공동체	차별당한 경험(D-1)	있다=1, 없다=0	독립 변수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다른 문화가 얼마나 큰 문제인가(A10-2)	0-전혀 아님 3-매우 큰 문제	
사회구조	정부는 나 같은 사람의 의견에 관심이 없다(D7-2)	1-매우 그렇다 5-매우 그렇지 않다	
	중앙정부 부처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하는가(A2-8)	1-거의 신뢰하지 않음 3-매우 신뢰	
	법의 집행이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A11-3)	1-매우 불공정 5-매우 공정	
개성,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적 성공	국적(B5), 성별(SQ3), 연령(B1), 학력(B10: 정규학교를 다닌 년수), 한국체류기간(B4)	연속	통제 변수
	혼인상태(E1)	1-기혼동거 0-미혼·사별·이혼	
	채류자격(Type)	1-영주권자 0-귀화자	
	월평균 가구수입(F4)	1-100만원 8-700만원	
	종교(B14)	개신교, 천주교, 불교, 없음(각각 1-0, dummy)	
	한국어 듣기(A4-2)	1-매우 못함 5-매우 잘함	
	나는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정치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D7-3)	1-매우 그렇지 않음 5-매우 그러함	
경제적인 면, 직업, 건강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A7)	1-매우 불만족 5-매우 만족		

2. 분석결과

<표 3>는 본 연구에서 설명변수로 선정된 자발적 결사체와 사회적 연결망(또는 주민자치회·반상회, 동호회·여가모임, 종교단체와 같은 단체활동 참여도)과 공동체와 사회구조에 대한 경험과 인식(공동체 경험 - 문화차이, 차별경험, 생활만족도; 사회구조 경험 - 법집행 공정성, 중앙정부 부처 신뢰, 정부의 나에 대한 관심)와 사회신뢰 점수에 있어서 집단 간 비교를 위하여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이민자들이 참여하는 단체 중에서 주민자치회나 반사회만이 참여여부와 방식이 사회신뢰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으로 주민자치회와 반사회에 비슷한 정도로 참여하는 이민자의 사회신뢰수준이 참여하지 않는 이민자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중 어느 한 방식으로만 참여하는 이민자보다 높았다. 전체적으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주민자치회나 반사회에 참여하는 이들이 참여하지 않는 이들보다 사회신뢰수준이 높았다. 동호회나 여가모임 또는 종교단체의 경우에도 참여여부와 방식에 따라 사회신뢰 수준에서 약간 차이가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다. 아마도 다양한 신념과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는 공적인 모임인 주민자치회나 반사회와는 달리 동호회나 종교단체는 신념이나 취향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사적 모임이기 때문에 일반신뢰(사회신뢰) 형성에는 영향을 덜 미치는 것이라고 추측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참여하는 단체의 수나 활동의 적극성보다는 단체 내 구성원 간 관계의 내용 또는 질(quality)이 더 중요하다는 박종민과 김왕식(2006)의 연구결과를 다시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공동체와 사회구조에 대한 경험이나 인식과 관련된 설명변수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문화 차이가 외국인인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할수록 사회신뢰수준이 낮다. 즉 문화차이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 이민자(그룹 1)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이민자(그룹 2)의 사회신뢰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차별을 경험한 이민자는 그렇지 않은 이민자보다 사회신뢰가 낮다.

다음,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의 경우에도 사회신뢰에 영향을 미쳤는데, 경제적인 면, 직업, 건강 등 전반적인 생활에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사회신뢰수준도 높았다. 특히 매우 만족하는 이민자(그룹 3)는 매우 불만족하는 이민자(그룹 1)보다 훨씬 더 사회신뢰수준이 높고,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하는 이민자(그룹 2)보다도 사회신뢰수준이 확연히 높았다. 이러한 통계분석결과는 사회적 승자일수록 사회신뢰가 높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Orrén 1997; Newton 1999a; Whiteley 1999; Delhey et al. 2003).

그 다음,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의 경우, 법의 집행이 매우 공정하다(그룹 4), 약간 공정하다(그룹 3), 그저 그렇다 또는 약간 불공정하다(그룹 2), 매우 불공정하다 또는 약간 불공중하다(그룹 1)의 네 집단 간 사회신뢰 차이가 분명히 나타났다. 또한 중앙정부 부처를 매우 신뢰하는 이민자(그룹 2)와 다소 신뢰하거나 거의 신뢰하지 않는 이민자(그룹 1)간에 사회신뢰수준의 차이가 있었다. 또한 정부가 나의 의견에 관심이 매우 많다는 이민자(그룹 1)는 약간 많다 또는 그저그렇다 또는 별로 없다는 이민자(그룹 2)나 관심이 전혀 없다는 이민자(그룹 3)보다 사회신뢰수준이 높다. 특히 매우 많다는 이민자와 전혀 없다는 이민자 간의 차이가 매우 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최근의 국내연구 결과(박종민 외 2006; 이병기 2009; 이동원 2013; 임완섭

2014)와 일치한다.

<표 3> 집단 간 평균비교

범주	변수	집단	M (평균)	SD (표준편차)	F(모수 및 랜덤효과)	P(유의확률)
단체 활동	주민자치 회· 반상회	참여하지 않는다	7.31 ¹	2.04	6.165***	.000
		참여(온라인)	7.46 ¹	1.92		
		참여(오프라인)	7.43 ¹	1.73		
		참여(온라인/오프라인)	8.21 ¹	1.70		
	동호회· 여가모임	참여하지 않는다	7.34	2.05	2.248	.081
		참여(온라인)	7.32	1.82		
		참여(오프라인)	7.24	2.01		
		참여(온라인/오프라인)	7.78	1.94		
	종교단체	참여하지 않는다	7.37	2.03	.189	.904
참여(온라인)		7.50	1.81			
참여(오프라인)		7.40	1.88			
참여(온라인/오프라인)		7.48	2.07			
국가 제도 및 사회 경험· 인식	문화차이	매우 큰 문제	6.79 ¹	2.13	20.709***	.000
		대체로 문제	7.10 ¹	1.97		
		별로 문제되지 않음	7.63 ²	1.98		
		전혀 문제 되지 않음	8.18 ³	1.81		
	차별경험	없다	7.91	1.96	24.652***	.000
		있다	7.30	2.03		
	법 집행	매우 불공정	6.14 ¹	2.52	48.012***	.000
		약간 불공정	6.74 ¹²	1.97		
		그저그렇다	7.04 ²	1.92		
		약간 공정	7.81 ³	1.69		
	중양정부	매우 공정	8.69 ⁴	1.73	7.456***	.001
		거의 신뢰하지 않음	7.49 ¹	2.28		
		다소 신뢰	7.35 ¹	1.75		
	정부의 나에 대한 관심	매우 신뢰	8.07 ²	2.17	16.862***	.000
		관심이 매우 많다	8.37 ¹	1.62		
관심이 약간 많다		7.74 ¹²	1.78			
그저그렇다		7.72 ²³	1.85			
관심이 별로 없다		7.27 ²³	1.82			
생활 만족도	관심이 전혀 없다	6.73 ³	2.31	19.320***	.000	
	매우 불만족	6.27 ¹	2.12			
	약간 불만족	7.09 ²	1.90			
	보통	7.35 ²	1.97			
	약간 만족	7.77 ²	2.03			
매우 만족	8.54 ³	1.81				

주: 1 2 3 4 등은 동일집단군을 의미함.

주: *p<.05, **p<.01, ***p<.001

ANOVA 분석은 개별 설명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일대일 관계만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각 설명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상대적 영향은 알 수가 없다. 설명변수의 사회신뢰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중회귀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사회신뢰를 종속변수, 자발적 결사체와 사회적 연결망 관련 세 개의 변수와, 공동체와 사회구조에 대한 경험 내지 인식 관련 여섯 개의 변수를 설명변수로 하고, 국적, 성별, 연령, 교육년수, 혼인상태, 체류자격 등 사회경제적 배경과 상태 관련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사용할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수들은 다른 변수와의 상관관계 계수가 0.9미만으로 모두 유의한 수준에서 나타났다. 상관관계 계수가 가장 높게 나온 것은 대만과 한국거주기간으로 0.801이었고, 다음으로 국적(동남아)와 단체활동(주민자치회·반상회)(0.508), 단체활동(종교모임)과 종교없음(-0.526), 단체활동(주민자치회·반상회)와 단체활동(동호회·여가모임)(0.519) 등이며, 나머지는 모두 0.5 이하로 나타났다.¹²⁾ 다만 국적(조선족)의 경우 공선성 값(VIF)이 10을 넘어 문제가 없지 않으나, 반드시 필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포함시켰다(<표 5>).

<표 4>는 이상과 같은 절차를 거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5>에서 보듯이 본 연구에서 채택한 모형은 사회신뢰의 17.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기서 선정한 설명변수들이 사회신뢰를 어느 정도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R^2 = .178$, $F = 5.947$, $p < 0.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단체활동 관련 설명변수 가운데 주민자치회·반상회(참석여부와 방식)만이 유의한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beta = .115$, $p < 0.05$), 동호회·여가모임과 종교모임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의 수나 활동의 적극성보다는 단체의 성격이나 구성원 간 관계의 내용 또는 질(quality)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 관련 설명변수 중에는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사는데 다른 문화가 문제이다’(다른 문화)는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beta = -.079$, $p < 0.05$),¹³⁾ 이민자가 문화차이를 한국인이나 한국사회에 통합되는데 장애로 생각할수록 신뢰형성은 지체된다는 상식을 입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이한 것은 기존 연구에서 사회신뢰의 중요한 영향요인인 ‘차별경험’이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에서 차별 당한 이유나 강도가 아니라 차별 경험 유무만 묻는 것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국가제도와 관련된 변수 중 법집행의 공정성은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beta =$

12) 변수가 너무 많아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지 않았음.

13) 문제가 된다고 생각할수록 사회신뢰는 낮다.

.196, $p < 0.001$), ‘정부의 내 의견에 대한 관심’은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26, p < 0.01$). 전자는 법질서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신뢰 형성에 결적으로 중요하다는 기존 연구결과(박종민·김왕식, 2006)를 재확인하는 것이고, 후자는 사회신뢰 형성에 있어서 정부의 민주성 내지 국민에 대한 반응성(responsiveness)이 갖는 중요성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생활만족도는 사회신뢰 형성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beta = .128, p < 0.001$), 이 역시 생활만족도가 높은 사람을 사회적 승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승자일수록 사회신뢰가 높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재확인하는 것이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사회경제적 배경변수는 사회신뢰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국적과 일부 종교, 그리고 나이는 사회신뢰수준에 어느 정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민자 중에서 일본 출신과 북미 출신의 β 값은 각각 $-.195, -.182$ (둘 다 모두 $p < 0.05$)로 양 국적 출신은 사회신뢰에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다른 국적 출신 이민자들도 부의 방향을 보이고 있지만 유의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결과는 문화차이가 한국사회 생활에서 문제가 된다고 인식이 사회신뢰에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조금 전의 분석결과와 연결하면 이해될 수 있다. 즉 선진국인 일본과 미국 출신의 경우 한국문화의 부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인식하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다른 한편 나이와 종교(개신교)는 정의 방향으로 사회신뢰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즉 나이의 β 값은 $.125(p < 0.05)$ 이고, 개신교의 β 값은 $.120(p < 0.05)$ 이다. 나이가 많을수록 사회신뢰수준이 높게 나오는 것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른 시대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다는 세대효과일 수도 있고, 나이가 들면 누구나 특정한 가치나 태도를 갖게 된다는 생애 주기 효과일 수도 있을 것이다(PEW Research 2007; Robinson et al. 2001). 어느 것이 더 설득력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종교가 사회신뢰에 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으나 개신교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서는 종교와 사회신뢰 간의 관계가 반드시 정의 방향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Berggren et al 2011)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 개신교만이 사회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이유에 대해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사회적 승자의 지표로 제시된 ‘높은 소득수준’은 사회신뢰 형성에 부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소득이 연속변수가 아니라 순위변수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소득을 사회적 승자의 지표로 삼는 데는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도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당면 정치문제에 대한 이해’와 ‘한국어 듣기 능력’은 비록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지만 사회신뢰에 부의 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사회에 대한 지식이나 문자해독능력 그 자체가 사회신뢰 형성에 기여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파악하는 한국의 정치와 사회의 질적 수준이 더 중요함을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표 4> 사회신뢰 영향요인 분석

요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Value	Prob>F	Adjusted R-Square
회귀 모형	523.983	28	18.714	5.947	.000	.178
잔차	1922.753	611	3.147			
합계	2446.736	639				

설명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Value	Pr> t	공선성 통계량	
		B	표준 오차	베타			공차	VIF
(상수)		4.990	.836		5.967	.000		
단체활동	주민자치회, 반상회	.246	.111	.115	2.221	.027	.479	2.086
	동호회, 여가모임	.048	.079	.027	.599	.550	.632	1.583
	종교집단(교회, 절, 성당 등)	-.158	.090	-.092	-1.763	.078	.476	2.099
국가제도와 사회인식 경험	한국사회의 문제점_다른 문화	-.175	.087	-.079	-2.009	.045	.832	1.202
	차별대우를 받은 경험	-.196	.172	-.045	-1.141	.254	.823	1.215
	공정성_법의집행	.341	.072	.196	4.709	.000	.741	1.350
	사회기관_중앙 정부 부처	.081	.127	.025	.635	.525	.804	1.244
	정부의 나 의 의견 관심도	.208	.067	.126	3.119	.002	.791	1.265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	.256	.080	.128	3.192	.001	.804	1.244
사회경제적 배경 및 상태	국적-조선족	-.606	.489	-.153	-1.240	.216	.085	11.818
	국적-중국	-.538	.493	-.097	-1.091	.276	.164	6.092
	국적-대만	-.930	.679	-.143	-1.369	.171	.119	8.434
	국적-일본	-1.350	.598	-.195	-2.257	.024	.172	5.806
	국적-동남아	-.586	.483	-.111	-1.213	.226	.153	6.520
	국적-북미	-1.528	.661	-.182	-2.311	.021	.206	4.843
	성별-남	-.050	.191	-.012	-.262	.793	.637	1.570
	나이	.021	.009	.125	2.424	.016	.483	2.068
	정규교육 년수	-.013	.026	-.023	-.488	.626	.577	1.734
	혼인상태-기혼동거	-.102	.211	-.019	-.483	.629	.828	1.208
	체류자격-영주권자	.084	.184	.021	.458	.647	.605	1.653
	종교-개신교	.628	.302	.120	2.080	.038	.385	2.600
	종교-천주교	.329	.368	.046	.893	.372	.485	2.060
	종교-불교	.142	.311	.029	.455	.649	.314	3.186
	종교-없음	.133	.293	.034	.455	.650	.233	4.284
	한국의 당면 정치 문제 이해	-.132	.075	-.071	-1.750	.081	.781	1.280
한국어 듣기 능력	-.063	.080	-.032	-.794	.428	.794	1.260	
한국 거주 기간	.003	.012	.021	.276	.783	.219	4.576	
월평균 총 가구소득	-.021	.050	-.019	-.420	.674	.664	1.507	

V. 맺음말

지금까지 사회신뢰를 종속변수로 하고 자발적 결사체와 사회적 연결망,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과 경험 관련 변수들을 설명변수로 하여 이민자의 사회신뢰의 영향요인을 통계학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자발적 결사체 관련 변수 중에는 주민자치회·반사회 참석여부와 방식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공동체와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과 경험 관련 변수 중에는 한국생활적응 저해요소로서의 다른 문화,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법 집행 공정성, 정부의 내 의견에 대한 관심도 등 대부분의 변수들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여러 요인 중에서 특히 법 집행의 공정성이 사회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민자의 사회통합에 있어서 국가제도 특히 법이나 정책 집행과정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민자의 단체활동, 문화 차이 인식, 생활만족도 등 시민사회의 조건도 사회신뢰의 생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국가가 단체활동의 내용이 사회신뢰를 생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민자와 내국인 간의 문화차이와 차별을 해소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신뢰 형성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서 경험적으로 검증되어 있지만(서문기 2001; 박종민 외 2006), 이민자의 경우에도 이 가설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은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나 제도가 사회통합(즉 신뢰형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평가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후속 연구를 통해서 보완되어야 할 점이 없지 않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의 모형은 사회신뢰의 일부(17.8%)만을 설명했다는 점이다. 나머지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단체활동과 관련하여 참여여부와 방식 이외 구성원 간 상호작용 또는 관계의 질적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변수를 개발하여 설명변수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차별경험과 관련해서도 단순히 유무만이 아니라 차별의 이유나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결과적 평등성, 청렴성, 정직성, 국민과의 소통,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자유 보장 등과 같은 국가와 관련된 다른 요소들도 포함하는 보다 종합적인 모형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자료상의 한계로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을 외국국적동포와 결혼이민자에 제한했기 때문에 전문외국인력, 유학생, 단순노무외국인력, 난민 등 다른 유형의 이민자, 그리고 한국 국민과의 차이와 공통점을 분석하지 못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들

집단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국민과 이민자, 서로 다른 유형의 이민자 간 사회신뢰 수준과 요인을 비교함으로써 집단 간 차이점과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럴 경우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의 설명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신욱. 2010. “OECD 사회통합지표(Social Cohesion Indicators)의 이해,” 『보건복지포럼』 9월호, 122-127.
- 권기대. 이상환. 2003. “벤처기업-대기업 협력에 대한 실증적 연구: 의존성, 권력, 신뢰를 중심으로.” 『벤처경영연구』 6권 2호, 53-75.
- 권석균. 2010. “부서 간 관계에서 협력당사자 간 신뢰의 영향요인과 효과성.” 『인적자원관리연구』 17권 2호, 95-120.
- 권아연. 조삼섭. 2014.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 공중과 법무부 간 공중관계성이 이민 만족도 및 한국사회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를 중심으로.” 『홍보학연구』 18권 4호, 119-168.
- 김영란. 2013. “다문화사회 한국의 사회통합과 다문화주의 정책,” 『한국사회』 14권 1호, 3-30.
- 김우식. 2002. “구조적 신호 읽기: 연결망 구조와 규칙위반 행위의 조응방식.” 『한국사회학』 36권 6호, 57-82.
- 김우식. 2006. “연결망, 불평등, 위법행동: 비도덕성을 생성하는 사회적 자본.” 『한국사회학』 40권 5호, 29-60.
- 김육진. 2014. “배고픔은 신뢰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일반적 신뢰와 식품 미보장의 관계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30권 3호, 1-29.
- 김은미. 정일권. 배영. 2012. “누구와의 교류인가? 인터넷을 통한 교류의 범위가 사회신뢰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학보』 26권 5호, 44-77.
- 김이선. 이아름. 이은하. 2013.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 진전 양상과 정책 수요 분화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1.
- 김중운. 2012. “벤처기업의 외부협력이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술혁신학회지』 15(3), 533-556.
- 노대명. 2009. “사회통합의 현황과 향후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4월호.
- 류석춘. 왕혜숙. 박소연. 2008. “연고집단과 자발적 결사체의 신뢰 비교연구: 동창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동양사회사상』 17권, 203-269.
- 문유경. 전기택. 2011. 『남녀 결혼이민자 사회통합지표 개발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병진. 2007. “신뢰형성에 있어 사회참여와 제도의 역할.” 『한국사회학』 41권 3호, 65-105.
- 박종민. 김왕식. 2006. “한국사회에서 신뢰의 생성: 시민사회와 국가제도의 역할.” 『한국정치학회보』 40권 2호, 149-169.
- 박통희. 원숙연. 2000. “조직구성원 간 신뢰와 ‘연줄.’” 『한국행정학보』 34권 2호, 101-120.

- 박희봉. 이희창. 2009. “한국과 일본의 신뢰 특성 비교: 신뢰 유형별 특성 및 제도신뢰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행정학보』 43권 4호, 105-128.
- 박희봉. 이희창. 2011. “신뢰와 정부경쟁력 - 한·중·일 3국의 시민의식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0권 2호, 289-318.
- 박희봉. 이희창. 김동욱. 김철수. 박병래. 2003. “한국인의 신뢰수준 및 영향요인: 단체참여 및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대인신뢰, 단체신뢰, 대중매체 신뢰.” 『한국정책학회보』 12권 3호, 199-227.
- 배경희. 김석준. 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가구소득과 직업유무가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자본 조절효과 검증.” 『한국사회복지학』 64권 3호, 5-27.
- 배병룡. 2005. “조직 내 신뢰가 반응성에 미치는 영향: 협력, 민주성 및 조직몰입의 매개를 통하여.” 『한국행정학보』 39권 3호, 67-86.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8.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08~2012』
- 사회통합위원회. 2012. 『사회통합위원회 연례보고서』. 사회통합위원회.
- 서문기. 2001. “한국사회의 정부신뢰구조,” 한국사회학 35권 5호, 119-146.
- 서형준. 명승환. 2015. “사회자본과 정부신뢰의 관계 재조명: 연속적 사회자본과 계량적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9권 3호, 1-31.
- 설동훈. 2010. 『국내거주 영주권자 실태조사 및 사회통합도 측정』. 2010 법무부 용역 보고서,
- 설동훈. 김명아. 2008. 『한국의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 및 지수 개발에 대한 연구』. 법무부
- 신명숙. 2013. “장애인 고용과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과 스웨덴의 제도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사학지』 32, 161-192.
- 양건모. 배귀희. 2013. “노사에 대한 신뢰가 조직몰입과 협력에 미치는 영향: 서울메트로 지하철공사 노사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7권 3호, 245-268.
- 양인숙. 김선혜. 2011. “여성결혼이민자이 인적자본 및 사회자본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경영경제연구』 34권 1호, 237-266.
- 엄동욱 외. 2009. “협력적 노사관계와 기업성과에 대한 실증연구 -혁신적 HRM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응용경제』 11권 3호, 221-249.
- 원숙연. 박통희. 2001. “정부조직내에서 상관에 대한 부하의 신뢰: 상관의 개인적 특성과 관계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9권 4호, 137-163.
- 유석춘. 장미혜. 배영. 2002. “사회자본과 신뢰: 한국, 일본, 덴마크, 스웨덴 비교연구,” 동서연구 14권 1호, 101-135.
- 이동원. 2013. 『사회신뢰의 결과와 원인』.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 이명현. 이형룡. 2012. “호텔 직원의 사내 동호회 활동을 통한 여가만족이 조직유효성에

- 미치는 영향 - 소속감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25권 3호, 1283-1302.
- 이병기. 2009. 『사회적 자본의 축적과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신뢰의 정책적 함의』.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 이재열 외. 2014. “사회통합: 개념과 측정, 국제비교,” 『한국사회정책』 21권 2호, 113-149.
- 이재완. 2013. “외국인 신뢰가 다문화정책지지에 미치는 효과분석: 서울시의 외국인이주 정책과 다문화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2권 4호, 285-315.
- 이재혁. 1998. “신뢰의 사회구조화.” 『한국사회학』 32권 2호, 311-335.
- 이재혁. 2006. “신뢰와 시민사회: 한미 비교연구.” 『한국사회학』 40권 5호, 61-98.
- 이주호. 권경득. 2013. “갈등 상황에서 협력의지에 미치는 신뢰의 매개효과 분석 - 허베이 스프리트호 유류유출사고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5권 4호, 195-218.
- 이준웅. 김은미. 문태준. 2005. “사회자본 형성의 커뮤니케이션 기초: 대중매체 이용이 신뢰, 사회연계망 활동 및 사회정치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49권 3호, 234-261.
- 이채원. 2015. 사회자본이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참여 및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67권 1호, 239-261.
- 이희길. 2013. “사회통합의 의미와 접근방법,” 『KIPA 조사포럼』 6, 90-99.
- 임완섭. 201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회적 신뢰 제고 효과 분석.” 『사회복지정책』 41권 2호, 109-134.
- 장수찬. 2007. “한국사회의 신뢰수준의 하락과 그 원인: 국가 간 비교분석적 관점에서.” 『세계지역연구논총』 25집 3호, 125-156.
- 장용석 외. 2012. “사회통합의 다원적 가치와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국가주의, 개인주의, 공동체주의, 세계시민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8권 5호, 289-322.
- 전경옥 외. 2011. 『재한외국인 사회통합 지표 및 지수 측정』.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전대성. 길강목. 2016. “재한 외국인의 한국사회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다문화와 평화』 제10집 제1호, 197-218.
- 정대성. 권일웅. 정광호. 2013. “정부신뢰에 대한 연구: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2권 2호, 181-206.
- 정기선. 2012. 『2012년 체류외국인 실태조사: 영주권자와 귀화자를 중심으로』. 법무부 용역보고서.
- 정영태 외. 2014.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다양화 방안에 대한 연구』. 과천: 법무부 출입

국외국인정책본부.

- 최경일. 2010. “한국사회복지사의 대인관계능력이 직문만족에 미치는 경로분석: 학교사회복지사와 교사 간 신뢰와 협력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2권 1호, 145-164.
- 최대정, 박동건. 2002. “가상화된 조직의 환경특성, 신뢰 및 협력행동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5권 2호, 123-149.
- 최춘산, 김범식. 2011. “베이징 대학생의 올림픽 기대감과 사회신뢰, 공동체의식, 협력의사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50권 3호, 215-225.
- 황보작 외. 2011. “통합적 인적자원관리 유형에 따른 노사협력과 기업성과에 관한 연구 - 도시철도운영기업을 중심으로,” 『한국철도학회논문집』 14권 3호, 300-311.
- 황은하, 장덕훈. 2011. “조직간 관계특징이 재난관리 협력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24권 3호, 1797-1813.
- Acedo, Crinstina, and Antoni Gomila. 2013. “Trust and cooperation: a new experimental approach.”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1299. No.1, 77-83.
- Acedo-Carmona, Cristina, and Antoni Gomila. 2014. “Personal trust increases cooperation beyond general trust.” <http://www.plosone.org/article/fetchObject.action?uri=info:doi/10.1371/journal.pone.0105559&representation=PDF> (검색일: 2015. 1. 27)
- Almond, Gabriel A. and Sidney Verba. 1963. *The Civic Cultur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Allport, Gordon. 1961. *P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 Harcourt College Pub.
- Berggren, Niclas, and Christian Bjørnskov. 2011. “Is the importance of religion in daily life related to social trust? Cross-country and cross-state comparisons.”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80, 459-480.
- Berman, Yizhak and Phillips, David. 2004. “Indicators for social cohesion,” Paper submitted to the European Network on Indicators of Social Quality of the European Foundation on Social Quality. Amsterdam. June.
- Boix, Carles, and Daniel N. Posner. 1998. “Social capital: Explaining its origins and effects on government performanc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8, No.4, 686-693.
- Bollen, Kenneth A., and Hoyle, Rick H. 1990. “Perceived cohesion: A conceptual and empirical examination,” *Social Forces* 69, No. 2, 479-504.
- Brewer, Marilyn B. 1996. “When contact is not enough: Social identity and intergroup cooper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0,

No.3-4, 291-301.

- Cagala, Tobias, Ulrich Glogowsky, Veronika Grimm, and Johannes Rincke. 2014. "Cooperation and trustworthiness in repeated interaction." http://www.wirtschaftspolitik.rw.uni-erlangen.de/CAGALA_GLOGOWSKY_GRIMM_RINCKE_Coop_and_Trust_12_2014.pdf(검색일: 2015. 1. 23).
- Cattell, R. B. 1965. *The scientific analysis of personality*. Baltimore: Penguin Books.
- Chan, Josephm To, Ho-Pong, and Chan, Elaine. 2006. "Reconsidering social cohesion: Developing a definition and analytical framework for empirical research," *Social Indicators Research* 75, 273-302.
- Cohen, Jean. 199. "Trust, Voluntary Association and Workable Democracy: the Contemporary American Discourse of Civil Society." Mark E. Warren. eds. *Democracy and Trus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khli, Mourad. 2009. "Investigating the effects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on trust and cooperaton." *Psychology Journal* 6, No.3, 90-99.
- Deaux, Kay. 2001. "Social identity." In J. Worell, ed. *Encyclopedia of Women and Gender*, 1059-1068, San Diego: Academic Press.
- Delhey, Jan, and Newton, Kenneth. 2003. "Who trusts? The origins of social trust in seven societies." *European Societies* 5, No.2, 93-137.
- Erikson, Erik H. 1950.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W. W. Norton.
- Fiske, S. T. 2004. *Social beings: A core motives approach to social psychology*. Hoboken, N.J.: Wiley.
- Fukuyama, Francis.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perty*. New York: Free Press.
- Gardner, Andy, Ashleigh S. Griffin, and Stuart A. West. 2009. "Theory of cooperation." In eLS. John Wiley & Sons Ltd, Chichester. <http://www.els.net> [doi: 10.1002/9780470015902.a0021910]
- Haslam, S. A., van Knippenberg, D., Platow, M., and Ellemers, N. (Eds.) 2003. *Social identity at work: Developing theory for organizational practice*. New York and Hove: Psychology
- Haslam, S. A. 2004. *Psychology in organization: The social identity approach*. (2nd ed.). London: Sage.
- Hollen, K. A. and Hoyle, R. H. 2001. "Perceived cohesion: A conceptual and empirical examination," *Social Forces* 69, 2gh, 479-504.

- Hooghe, Marc, and Sofie Marien. 2010. "Trust in institutions, reciprocity and cooperative behavior: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political and generalized trust and reciprocity." The APSA Annual Meeting. Washington D.C. U.S.A September.
- Inglehart, Ronald.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ones, G., and J. George. 1998. "The experience and evolution of trust: Implications for cooperation and teamwork."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 No.3, 531-546.
- Jones, Gareth R. 1998. "The experience and evolution of trust: Implications for cooperation and teamwork."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 No.3, 531-548.
- Jordan, Jillian J., Alexander Peysakhovich, and David G. Rand. 2014. "Why we cooperate." In Jean Decety and Thalia Wheatley, eds. *The moral brain: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87-103. Cambridge: MIT Press.
- Koopmans, Ruud, and Veit, Susanne. 2014. "Cooperation in Ethnically Diverse Neighborhoods: A Lost-Letter Experiment," *Political Psychology* 35, No. 3, 379-400,
- Lee, Dongseop, Alexander D. Stajkovic, and Bongsoon Cho. 2011. "Interpersonal trust and emotion as antecedents of cooperation: Evidence from Korea."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41, No.7, 1603-1631.
- Levi, Margaret. 1998. "A State of Trust." Valerie Braithwaite and Margaret Levi, eds. *Trust and Governance*. New York: Russell Sage.
- Lewicki, Roy J. and Edward C. Tomlinson. 2003. "Trust and trust building." *Beyond Intractability*. Eds. Guy Burgess and Heidi Burgess. Conflict Information Consortium,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 Loobuyck, Patrick. 2012. "Crating mutual identification and solidarity in highly diversified societies: The importance of identification by shared participation." *South African Journal of Philosophy* 31, No.3, 560-575.
- McAllister, D. J. 1995. "Affect- and cognition-based trust as foundation for interpersonal cooperation in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8, No.1, 24-59.
- Mael, F. and Ashforth, B. 1992. "Alumni and their alma mater: A partial test of the reformulated model of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3, 103-123.

- Mayer, Roger C., Davis, James A. and Schoorman, F. David. 1995. "Integrative model of organizational trust,"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 No. 3, 709-734
- Montoya, R. Matthew. 2011. "When increased group identification leads to outgroup liking and cooperation: The role of trust,"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5, No. 6, 784-806.
- Newton, Kenneth. 1997.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0, No.5, 575-586.
- Niland, Amanda. 2015. "'Row, row, row your boat': singing, identity and belonging in a nursery."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Years Education* 23, No.1, 4-16.
- Ford, Jane, O'Hare, David, and Henderson, Robert. 2013. "Putting the "We" into teamwork: Effects of priming personal or social identity on flight attendants' perceptions of teamwork and communication," *Human Factors: The Journal of the Human Factors and Ergonomics Society* 55, 3gh, 499-508.
- Orren, Gary. 1997. "Fall from grace: the public's loss of faith in government." In Joseph S. Nye, Philip Zelikow and David C. King, eds. *Why Americans mistrust government*, 77-108.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Pagotto, Lisa, Emilio Paolo Visintin, Giulia De Iorio, and Alberto Voci. 2012. "Imagined intergroup contact protes cooperation through outgroup trust."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16, No.2, 209-216.
- PEW Research Center. 2007. "Americans and social trust: Who, where, and why." <http://www.pewsocialtrends.org/files/2010/10/SocialTrust.pdf>(검색일: 2015. 9. 20)
- Putnam, Robert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utnam, Robert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 Quigley, Narda R., Paul E. Tesluk, Edwin A. Locke, and Kathryn M. Bartol. 2007. "A multilevel investigation of the motivational mechanisms underlying knowledge sharing and performance." *Organization Science* 18, No.1, 71-88.
- Rand, David G., and Martin A. Nowak. 2013. "Human cooperation."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17, No.8, 413-425.

- Robinson, Robert V., and Elton F. Jackson. 2001. "Is trust in others declining in America? An age-period-cohort analysis." *Social Science Research* 30, 117-145.
- Rothstein, Bo and Dietlind Stolle. 2003. "Social Capital, Impartiality and the Welfare State: An Institutional Approach." Marc Hooghe and Dietlind Stolle, eds. *Governing Social Capital: Civil Society and Institutions in Comparative Perspective*. New York: Palgrave.
- Rousseau, D. M., Sitkin, S. B., Burt, R. S., and Camerer, C. 1998. "Not so Different After All: A Cross-Discipline View of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 393-404.
- Rovai, A. P. 2002.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measure classroom community." *Internet and Higher Education* 5, 197-211.
- Saggar, Shamit, Somerville, Ford, Rob, and Sobolewska, Maria. 2012. "The Impacts of migration on social cohesion and integration," Final Report to the Migration Advisory Committee, Home Office, UK. January.
- Simpson, Brent T. 2006. "The Poverty of Trust in the Southern United States," *Social Forces* 84, No. 3, 1625-1638
- Simpson, Brent. 2014. "Social identity and cooperation in social dilemmas," *Rationality and Society* 16, No. 4, 443-470.
- Smith, Ken G., Stephen J. Carroll, and Susan J. Ashford. 1995. "Intra- and inter-organizational cooperation: Toward a research agenda."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8, No.1, 7-23.
- Sønderskov, Kim Mannemar. 2011. "Explaining large-N cooperation: Generalized social trust and the social exchange heuristic." *Rationality and Society* 23, No.1, 51-74.
- Toqueville, Alexis de. 1956. *Democracy in America*. New York: Mentor.
- Uslaner, Eric M. 2003. "Trust, Democracy and Governance: Can Government Policies Influence Generalized Trust?" Marc Hooghe and Dietlind Stolle, eds. *Generating Social Capital: Civil Society and Institutions in Comparative Perspective*. New York: Palgrave.
- Waggoner, Cristina Nicolescu. 2009. "Is trust a cause or by-product of cooperation? The case of the European Union." Annual Meeting of the Midwest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Chicago. U.S.A. April.
- Warren, Mark. 2001. *Democracy and Associ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Whiteley, Paul F. 1999. "The origins of social capital." In Jan van Deth, Marco Maraffi, Ken Newton and Paul Whiteley, eds. *Social capital and European Democracy*, 23-41. New York: Routledge.

Williams, Michele. 2001. "In whom we trust: Group membership as an affective context for trust development."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6, No.3, 377-396.

ABSTRACT

Determinants of Immigrant Integration in Korea : Focusing on Korean compatriots and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s

Young-tae Jung*

This article aims to find out determinants of immigrants' social trust, by focusing on the two groups: Korean expatriats and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s residing in Korea. An analytic model is proposed, including various factors related to participation in voluntary associations, local community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social structure, as independent variables, on the one hand; and social trust as a dependent variable. Major findings are: involvement in public meeting turns out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among voluntary association-related factors; local community-related variables such as cultural barrier, and life satisfaction, and social structure-related variables such as fairness in law enforcement and belief that government listens to my voice, affect immigrants' social trust. In the concluding section, it is suggested that other variables related to group activity,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and public institution have to be included in the model employed here.

Key words: immigrant, Korean compatriot,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social integration, social trust, multiple linear regression

*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s & International relations, Inha University